

“관광산업 발전, 동반성장이 답”

비즈 토크

한국여행업협회 양무승 회장

“관광은 어느 한 나라가 월등히 앞서서 승패를 다투는 게임이 아닌 함께 크는 산업이다.”

4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규슈 구마모토 지역에 8월 말에 의미 있는 손님들이 방문한다. 한국 여행업 임직원 200여명으로 이루어진 ‘일본 규슈 구마모토 오이타 응원단’이다. 8월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구마모토 지진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유후인을 비롯한 규슈 주요 관광지를 시찰할 예정이다. 구마모토 오이타 응원단을 조직한 주인공은 1만5000여개 국내 여행업체가 모인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양무승 회장(62). 지난해부터 일본 등 해외관광업계와의 민간교류를 추진하면서 직접 대규모 방문단과 함께 찾아가고 있다. 평소 “민간교류가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임을 강조해온 양무승 회장을 만났다.



“양국 여행업계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한일관광교류 1000만 시대를 앞당기고 싶다.” 6월 도호쿠, 8월 규슈 등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 지역에 대규모 민간 방문단을 이끌고 찾아가 상호 교류의 ‘감성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8월 ‘구마모토 응원단’ 파견 지진 현장 격려·관광지 시찰

관광은 손익보다 상호 교류 먼저 손 내밀어 방한객 유치

-8월26일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규슈 지역을 방문한다. “구마모토 등이 4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규슈는 우리에게 큰 시장이고, 또한 한국사람이 많이 찾는 여행지다. 일본 방한시장은 2012년 350만명이 한국을 찾으며 정점을 찍은 이후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270만, 180만 매년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처럼 일본이 어려울 때 여행업 관계자들이 찾아가 위로하고 관광시설 현장을 확인해 한국 관광객을 계속 보내겠다는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쪽서도 한국을 많이 오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상호교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6월에는 240여명의 방문단이 역시 지진피해를 입었던 일본 도호쿠(東北)지역을 찾았다. 이런 대규모 해외 교류단은 어떤 계기로 구성하게 됐나. “한일관계로 일본 방한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던 2014년 12월, 일본여행업협회(JATA) 임직원이 1000여명이나 한국에 왔다. 그때 타가와 히로미 JATA 회장이 ‘마치 한국 가면 큰 일 겪을 것 같아 방한상품을 추천 못하고 위축됐는데, 와보니 전혀 문제가 없다. 여행사 임직원들이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런 JATA 임직원의 방문을 보고 우리도 해보고자 생각한 곳이 도호쿠 지역이다. 그곳은 쓰나미 이후 관광이 율스름됐고, 특히 한국관광객 발길이 뜸해졌다. 그 지역 관광산업이 살아나는데 도움을 주자고 구성했다.”

▲양무승 회장은?

▲1954년생 ▲송도고, 단국대,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1999년 南두어이천 대표이사.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광위원회 위원 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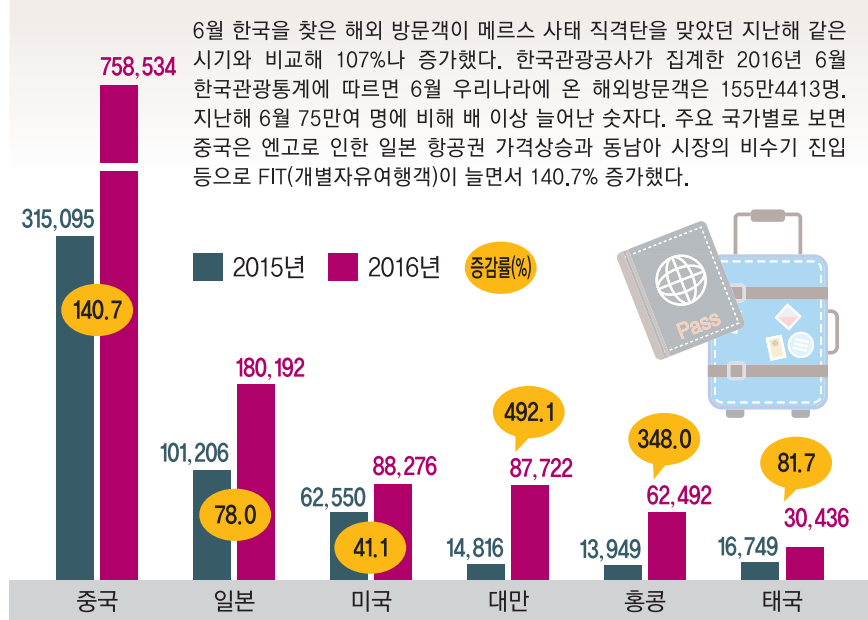


-그런 대규모 방문단이 양국 교류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도호쿠 방문은 지난해 4월 처음 실시했는데 메르스 사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했다. 마침 일본 중앙정부가 올해를 도호쿠 부흥 원년으로 선언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호응해 도와준 셈이다. 일본사람에게 한국에 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의와 의지를 보여 그들의 발길을 이끄는 일종의 감성마케팅이다.” -여행산업에 대해 덜 나가고, 많이 와야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행수지도 늘 적자나, 흑자나를 따진다. 그런데 그런 우위경쟁보다 교류를 통한 동반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런 시작으로 관광산업을 보면 생각이 좁아진다. 결국 장사꾼이 손해 안 보려고 수지타산만 따지는 모양새인데 국가간의 일, 특히 관광은 손익 개념보다 상호교류로 봐야 한다. 어느 나라나 다 관광객을 유치하려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 관광객을 덜 보내고, 무조건 더 많이 받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일본 방문단과 같은 교류가 우리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도호쿠 지역처럼 항공노선이 없어지거나 편수가 줄어드는 곳에 우리나라에서 가는 수요가 늘면 다시 편수가 증가하고 항공료도 낮아진다. 이는 도호쿠에서 한국에 올 수 있는 항공편이 늘고 값도 싸져 방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문단 활동을 통한 마음을 여는 감성 마케팅으로 한국 방문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우리 방문단에 대한 그들의 답사가 늘

‘한국 방문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라 해도 그런 것이 쌓여 실질적인 결실로 온다.” -한 인터뷰에서 관광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를 바라보는 사회분위기가 국가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관점에서 ‘여행은 숨은 외교관’이라고도 말했는데.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직 60년대에 머물고 있다. 그때는 무조건 외국 관광객을 많이 불러 국가경제에 보탬을 준다는, 유치정책만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 한 해 3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에 오고 해외로 나간다. 이제는 해외에 나간 우리가 어떤 모습과 문화를 보여주고 전파하는지도 중요하다. 외국에선 ‘한국사람=한국’이다. 해외에서의 모습과 행동이 한국에 가보고 싶은 니즈(needs)도 만든다. 이런 상호교류로 국민이 친해지면 국가는 자연스레 친해지지 않을까.” -대통령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다. 업계 단체장으로서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점은. “다들 애쓰시고 많은 정책을 내놓는데, 업계 입장에서선 컨트롤 타워가 없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아쉬움이 있다. 항공, 크루즈, 관광수용태세가 각각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었다. 통합적인 정책을 실시해 각종 주체를 집약할 곳이 필요하다.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총리실에 관광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관광분야를 통합 관리했는데, 이것이 1992년에 사라졌다. 우리 못지않게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일본은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관광임국추진간담회의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아 정책 추진력을 키웠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2016년 6월 방한 외래객 (단위: 명)



국적항공사 직원들의 추천여행지 & 꿀팁

가족여행은 하와이, 혼자 떠날 땐 오사카

셀프 체크인·키오스크로 시간 절약 면세품 사전 예약으로 두 손 가깝게

가족·힐링여행 최고는 하와이, 웰 체크인과 사전좌석배정 이용하면 여행 즐거움이 두 배. 직업상 해외여행이 잦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적기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내놓았다. 아시아나항공은 8일부터 17일까지 캐빈승무원 216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시즌 ‘승무원이 추천하는 여행지’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지’와 ‘힐링을 위한 여행지’에는 하와이가 1위를 차지했다. 온화한 날씨와 자연경관 때문에 허니문 명소로 꼽히지만 가족단위 여행과 재충전을 위한 힐링 여행에도 최적지로 꼽혔다.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혼자 떠나는 여행지’에는 일본 오사카를 추천했다. 식도락 여행명소로 응답자의 54%인 1173명이 꼽았다.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지’로는 단거리 여행의 베이스캠프인 홍콩이 1위에 올랐다.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방콕, 하노이를 추천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항공여행 준비부터 탑승수속 기내여행, 면세품 구입요령 등 해외여행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공개했다. 540만여명이 이번 여름휴가 성수기에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혼잡한 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최근 활성화된 웹·모바일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웹·모바일 체크인을 못했으면 공항 탑승권 자동 발급기 키오스크를 이용해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위탁수하물은 셀프체크인 전용 카운터를 이용하면 된다. 출발 361일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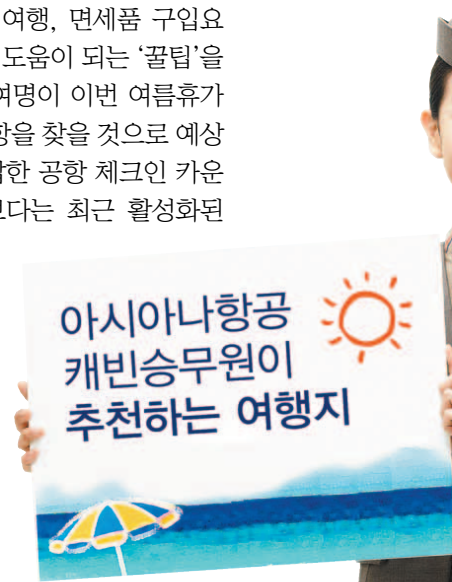
가능한 사전좌석배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선호하는 좌석을 미리 배정받을 수 있다.

건강한 여행을 위해서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travelinfo.cdc.go.kr)나 스마트폰의 질병관리본부 미니 앱 등을 통해 가고자 하는 나라에 필요한 예방 백신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기내식의 경우, 항공사들은 건강, 종교, 연령 등을 이유로 정규 기내식을 먹지 못하는 승객을 위해 다양한 특별 기내식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편 예약시 신청하거나 출발 24시간 전까지 사전에 주문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기내 판매 면세품은 사전 예약주문제를 이용하면 여행 내내 무거운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신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도 인터넷 주문을 통해 탑승자에게 기내 면세품을 선물하는 ‘하트 투 하트’ 서비스도 있다.

이밖에 인천공항을 비롯해 해외 주요 공항에는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샤워시설부터 마사지, 환승객을 위한 시티투어 등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있어 이를 100% 활용하는 것도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대명 소노펠리체 ‘어린이 승마캠프’ 강원도 홍천 대명 소노펠리체 승마클럽이 26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승마캠프’를 개최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승마 개인교육, 승마 이론 및 실기교육, 산림치유, 동물농장, 힐링폴, 파크골프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3박4일의 캠프기간 동안 소노펠리체 골드스위트 객실과 비발디파크 중, 석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 멕시코 악단 공연

하이원리조트는 8월31일까지 멕시코 마리아치 악단(사진) 공연을 진행한다. 마리아치는 기타, 바이올린, 트럼펫 등으로 구성된 멕시코 특유의 소편성 악단이다. 야외행사나 파티에서 흥을 돋우거나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 이

번 공연단은 기타, 바이올린, 트럼펫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강원랜드호텔 가페라운지, 컨벤션호텔 라비스타 등에서 공연한다. 19시, 21시30분, 22시50분 등 하루에 3차례에 걸쳐 30분씩 공연한다.

곤지암리조트 ‘섬머 나이트 페스티벌’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8월14일까지 ‘섬머 나이트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빛의 광장 특별무대에서는 성악 콘서트, 현악 4중주, 가수 공연, 레크리에이션, 마술쇼 등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주요 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을 연장한다. 패밀리스파가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패밀리마켓도 밤 10시까지 연장해 방향을 맞춘 어린이 가족을 위해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네일아트, 타로카드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별빛 아래서 즐기는 국가대표2 오직 휘파에서...2주 먼저 상영

29일부터 ‘마운틴 시네마’ 운영

강원도 평창 휘닉스 파크가 여름시즌을 맞아 야외영화 감상, 프라이빗 비치 등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그램 ‘오직, 휘파!’을 내놓았다.

‘마운틴 시네마’는 해발 1050m 휘닉스파크 정상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여름밤 야외에서 즐기는 영화감상이다. 메가박스과 함께 운영하는 ‘마운틴 시네마’의 첫 상영작은 ‘국가대표2’. 일반 개봉보다 2주 앞선 29일부터 상영한

다. 지정좌석 없이 3000평방미터의 규모의 잔디밭에서 마음에 드는 위치에 피크닉 매트나 담요, 캠핑 의자를 놓고 영화를 즐기면 된다. 8월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시작한다. 투숙객 외에 당일 현장티켓 구매도 가능하다.

여름시즌 동안 주문진 해수욕장에서는 투숙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를 운영한다. 파라솔, 선베드, 매트, 비치타월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자외선 차단제, 아이스워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라이빗 비치는 23일부터 8월



여름밤 야외영화감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휘닉스파크의 ‘오직 휘파! 마운틴 시네마’. 사진제공 | 휘닉스파크

21일까지 운영한다. 매일 오전 휘닉스파크에서 주문진 해수욕장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명상요가, 뇌호흡, 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건강을 챙기는 ‘오직, 휘파! 힐링 프로그램’도 22일부터 8월21일까지 실시한다. 김재범 전문기자